

‘양궁 광주’ 또 金 명중

임우근 ‘금 물살’

패럴림픽 수영 평영 100m



“금이다” 5일 오후(현지시각) 영국 런던 왕립 포병대 양궁 경기장에서 열린 2012 런던 패럴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김란숙(왼쪽부터), 고희숙, 이화숙이 금메달을 확정짓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럴림픽 수영 대표팀의 임우근(24)이 수영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임우근은 6일(한국시각) 영국 런던 올림픽 파크의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12 런던 패럴림픽 수영 남자 평영 100m SB5(지체장애) 결승전에서 1분34초06의 아시아 신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임우근보다 0.92초 늦은(1분34초98) 독일의 니엘스 그루넬베르크가 은메달을 차지했다. 결승전에서 4번레인을 배정 받은 임우근은 50m 레인을 1회 왕복하는 100m 경기에서 50m 구간에 43초50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도착했고 이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연합뉴스



5일 오후(현지시각) 영국 런던 올림픽 파크의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12 런던 패럴림픽 수영 남자 평영 100m SB5(지체장애) 결승에서 임우근이 금메달을 확정짓자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 페드로 이겨 기쁘다”

수영 금메달 임우근

대환장애인체육회에서 낸 2012 런던 패럴림픽의 한국 장애인 대표 선수단 ‘메달 획득 예상’에는 수영 대표 선수 임우근(25)의 이름 뒤에 ‘동메달’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임우근은 6일(한국시각) 영국 런던 올림픽 파크의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수영 남자 100m 평영 SB6 결승에서 1분34초06으로 당당히 금메달을 차지했다. 임마 뱃속에서 예정보다 너무 일찍 나온 임우근은 아주 어릴 때부터 고집이 보통이 아니었다. 임마 젖을 떼지 않으려는 임우근에 게 이유식을 먹이려고 하자 사흘 밤낮을 울었다. 임우근의 어머니는 다시 젖을 물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리를 수술하고 재활 훈련차 수영을 시작했지만 지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다. 임우근은 세계 대회에서 멕시코의 랄펠 페드로라는 선수를 보고 “와! 어떻게 저렇게 수영을 잘하는 선수가 있을까”하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2008년 베이징 대회 때도 페드로에게 졌지만 이번 런던 대회에서는 절대 지고 싶지 않았다. 결국 임우근은 ‘우상’에 가까웠던 페드로(3위·1분36초85)보다 2초79나 빠른 기록으로 터치패드 찍었다. /연합뉴스

광주장애인양궁협회 김란숙 맹활약... 여자단체 중국 꺾어

패럴림픽, 광주 이명구 출전 남자단체 은메달

광주장애인양궁협회의 김란숙(45)이 패럴림픽 양궁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관련기사 18면> 남자 양궁 단체전에 출전한 광주장애인양궁협회 이명구(44)는 숙적 러시아에 200-206으로 패하면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기보배의 2관왕에 이

어 패럴림픽에서도 금메달과 은메달이 나오면서 광주는 양궁 도시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게 됐다. 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왕립 포병대 양궁장에서 열린 2012 런던 패럴림픽 양궁 단체전에서 ‘숙자매’ 김란숙, 이화숙, 고희숙이 중국을 199-120으로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120초 안에 3발씩 팀별로 번갈아가며 24발의 화살을 쏘 승부를 가리는 경기에서 한국은 12발을 쏘는 때 이미 102-92로 크게 앞섰다. 중국은 마지막 3발에서 9점, 10점, 8점으로 193점을 만들었고, 173점에서 마지막 발에 나선 한국은 각각 8점, 9점, 9점을 추가해 199점으로 금

메달을 확정했다. 지난 2009년 세계선수권대회부터 호흡을 맞춘 ‘숙자매’는 지난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에 머물렀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이란에 이어 결승에서 중국을 꺾으며 패럴림픽 사상 첫 여자양궁 금메달의 위업을 달성했다. 한국은 2004년 아테네 패럴림픽에서는 동메달,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

무적의 ‘숙자매’

김란숙·이화숙·고희숙 금메달 “함께하면 마음 편해”

‘숙자매’ 셋이 모이니 무서울 것이 없었다. 이화숙(46), 고희숙(45), 김란숙(45). 이름에 모두 ‘숙’ 자(字)가 들어가 ‘숙자매’라고 불리는 이들이 2012 패럴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6일(한국시각) 왕립 포병대 양궁 경기장에서 열린 결승에서 ‘디펜딩 챔피언’ 중국을 만나 199-193으로 누르고 1위를 확정했다. 패럴림픽에서도 비장애인 올림픽에서처럼 양궁은 효자종목이지만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에서는 구릴 수 있을 만큼 선수가 충분하지 않았고 처음으로 팀을 꾸렸던 2004년 아테네 패럴림픽에서는 준결승에서 탈락하고 3~4위전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에서는 결승에서 패배해 시상대에서 개최국 중국의 국기를 들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2012 런던 패럴림픽에

서는 당당히 금메달을 따냈다. 런던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양궁 여자 대표팀은 화살을 땅바닥에 쓸 만큼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그렇지만 세 ‘숙자매’가 함께 영국에서 서로를 챙겨주면서 자신감은 곧 예전 이상으로 회복됐다. 12초 동안 3명의 선수가 화살 6발을 쏘야 하는 단체전 경기에서 그들은 서로를 믿었다. 한 명이 활을 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도 다음 선수가 시간을 단축시켜 줄 것을 믿었고, 다른 한 명이 실수로 6점, 심지어 4점을 쓴다 해도 다음 차례를 지키고 있는 선수가 더 좋은 점수를 내줄 것을 믿었다. 2009년 체코 세계선수권대회부터 함께 호흡을 맞춘 숙자매는 세계의 꼭대기에 올라서고는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이화숙은 “런던에 온 뒤에 동료들과 함께 훈련을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져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기뻐했다. /연합뉴스



“일어서게... 오늘은 내가 금이야” 5일(현지시각) 2012 런던 패럴림픽 육상 남자 400m 계주 T42-46(절단 및 기타장애) 결승에서 41초78의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한 남아공의 ‘블레이드 러너’ 오스카 피스토리우스(26)가 레이스를 마친 뒤 전날 200m 결승에서 자신을 제치고 금메달을 딴 바 있는 브라질의 알란 올리베이라에게 다가 손 내밀며 악수를 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스토리우스 세계新 금메달

400m 계주 남아공 3연속 금... 브라질은 실격

‘블레이드 러너’ 오스카 피스토리우스(26·남아공)가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피스토리우스는 6일(한국시각) 영국 런던 올림픽 파크의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2 런던패럴림픽 육상 남자 400m 계주 T42-46(절단 및 기타장애) 결승에서 41초78의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2위를 차지한 중국(42초98)팀보다 1.2초나 앞섰다. 피스토리우스는 남아공 육상 400m 계주 대표팀 4명 중 마지막 주자로 나서 바통을 들고 결승선을 통과했다. 피스토리우스는 2004년 아테네 패럴림픽 200m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2008년 베이징패럴림픽 100m, 200m, 400m에서 금메달을 휩쓸었

었다. 이번 금메달은 피스토리우스의 생애 5번째 패럴림픽 금메달이다. 이날 계주 결승에는 브라질 대표팀도 출전했다. 브라질 대표팀에는 하루 전인 4일, 200m 결승에서 피스토리우스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한 알란 올리베이라가 마지막 주자로 뛰었다. 그러나 브라질 계주 대표팀은 바통 터치 구간을 지난 뒤에야 바통을 넘겼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됐다. 한편 피스토리우스는 앞서 열린 육상 남자 100m T44(절단 및 기타장애) 결승에서 11초18의 개인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따냈다. 피스토리우스의 100m 결승전은 6일 오후 열렸다. /연합뉴스